

〈제 740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JB증권 베트남’ 우수직원 초청 연수 ‘호응’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최근 베트남 소재 해외 자회사인 ‘JB증권 베트남(이하 JBSV)’의 현지 우수직원 4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점으로 초청해 격려하고, 연수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현지 업무 성과가 뛰어난 직원들을 선정해 광주은행 본점 및 PrimePB센터

견학과 한국증권거래소 방문 등을 통해 선진금융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JBSV는 광주은행 최초 해외 자회사로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은행 미래 성장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광주은행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베트남의 인재들을 만나고 싶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직원들을 초대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연수를 통해 모회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동기부여가 돼 현지에 복귀해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JBSV가 베트남 최고의 증권사로 성장하는데 함께 하자”고 말했다.

◆4년 연속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후원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이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한 후원을 4년째 이어가고 있다. 광주은행과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올해를 포함해 매년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300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주장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

◆공공기관장의 '훈훈한 퇴임'...퇴직금 등 역대 '통큰 기부'



김동찬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가 취임 이후 월급과 퇴직급여를 합쳐 1억2000만원을 “아픈 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하며 ‘훈훈한 퇴임식’을 가졌다. 김 전 대표가 기부한 돈 가운데 1억원은 사랑의 장기기증과 한국생명사랑재단 광주전남지부에, 나머지 2000만원은 청년 도약 자금으로 각각 전달되고 사용될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기부는) 일자리재단 대표로 임명될 때부터 품어왔던 생각”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의 도시 광주가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나눔과 연대정신을 경제에 접목시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을 자동차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시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생겼으면 하는 게 오랜 철학이자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신세계

◆올해 첫 팩토리스토어 행사



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올해 처음인 팩토리스토어 행사를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연다. 28일 (주)광주신세계에 따르면 팩토리스토어는 해외 캐주얼, 영캐주얼, 남성/스포츠 등 패션&라이프스타일 상품을 30~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도심 한가운데서 유명 브랜드의 인기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이는 흔치않은 기회”라면서 “패션 이외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품목까지 접목시킨 만큼 고객들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지·산·학·연 거버넌스 협의체 출범



광주테크노파크(김영집 원장)는 26일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광주 지·산·학·연 거버넌스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의 사업 중 하나인 협의체는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 역점 타워 역할과 함께, 지역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광주테크노파크(김영집 원장)는 “지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다”며 “산학협력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광주시가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현대 N 페스티벌’에 레이싱 타이어 공급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원메이크(단일 차종 경주) 레이스 대회로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 N 페스티벌 (Hyundai N Festival)’에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2024시즌까지 레이싱 타이어를 전량 유상 공급한다. 또한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신뢰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국내외 모터스

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현대 N 페스티벌에 파트너사로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수십년간 축적해온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능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주)AutoLand광주

◆순창 실랜에서 힐링연수 스트레스 해소 ‘엄지 척’



호남지역 자동차산업의 요람인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이하 광주공장)이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군과 함께 이번 힐링연수를 기획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7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광주공장은 이미 지난해 200명을 대상으로 실랜에서 ‘실-치휴 힐링연수’ 과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만족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박래석 공장장)는 “간부사원들이 실랜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발효천국 순창의 명성답게 건강하게 사는 비법을 알아갈 기회를 준비해 주신 순창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예방·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김무영 본부장)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26일 담양안전체험교육장에서 사망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공공 발주

현장 안전보건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 안전보건자료 제공, 현장근로자 건강보호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김무영 본부장)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광주·전남지역 사망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약기관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우성정공

◆이제 세계 최고 이중사출금형회사로



우성정공(박화석 회장)이 30일 광주 북구 첨단 우성정공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주)우성정공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박 회장은 "30년 동안 회사가 존속하고 성장해 온 것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달성한 결과다"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모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성정공(박화석 회장)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개발해 조직 내에서의 창의적인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갈 것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직원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끌어내고, 우성정공만의 특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러한 비전을 토대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단한 팀워크와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추구하겠다. 사출금형 하면 '우성정공', 우성정공 하면 '세계 최고의 이중사출금형회사' 이렇게 세계 어디에도 없는 회사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에너지 자급자족 업무협약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27일 (주)KT 등 8개 기관과 '광주첨단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첨단산단은 3년간 총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해 △산단 내 태양광 발전 인프라 구축 △입주기업 탄소저감설비 교체 지원 △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 플랫폼 구축·운영

△입주기업 RE100 교육 및 컨설팅·인증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황상현 본부장)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첨단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산단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입주기업의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는 등 산업단지 저탄소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첨단ESG커뮤니티, 여름김치 나눔 활동 이웃사랑 실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황상현 본부장)는 ‘광주첨단ESG커뮤니티’와 함께 27일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여름김치 나눔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사랑콧나눔콧’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분기마다 지역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황상현 본부장)는 “여름김치 나눔은 2020년 5월 광주첨단ESG커뮤니티의 결성 이후 꾸준히 해오고 있는 활동”이라며 “잊혀지기 쉬운 여름의 초입에 이웃을 꾸준히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광주 남구 녹지공간 조성 500만원 전달



해양에너지(정희 대표이사)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청(구청장 김병내)에서 남구 숲길·산책길 정비를 위한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해양에너지의 ‘희망 한걸음, 행복한 동행’ 숲길·산책길 가꾸기 캠페인은 광주전남 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며 시민들이 느끼는 녹색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였다. 이를 통해 해양에너지는

ESG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해양에너지(정희 대표이사)는 “남구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마을형 연료전지 사업 등을 연계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주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에 지속적으로 회사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비엔날레’ 홍보 앞장서다



해양에너지(정희 대표이사)는 공급권역내에서 열리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28일 임직원들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했다. 이날 도슨트 설명과 함께 작품 관람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오는 7월초 예정된 ‘경영연구회 남부권(인사/노무) 위원회’도 남부권 도시가스 10개사 직원들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관람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경북·충남 지역민들에게도 광주비엔날레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해양에너지(정희 대표이사)는 광주·전남 내 공급권역을 순찰하는 회사차량 약 100대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행사 홍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10회 금요조찬포럼〉

- 주제 : 우리 역사 속의 혁명가 정도전을 만나다
- 강사 :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1610회 금요조찬포럼은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우리 역사 속의 혁명가 정도전을 만나다」를 주제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의 상황에 대해 강연하였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보다 약한 나라를 옆에 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상대하면서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 고려 말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등장하는 원명 교체 시기로 들어갑니다. 이때 고려가 외교를 실패합니다. 중립을 지키면서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게 고려 외교의 숙제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친명정책을 펼치면서 명나라 편에 서겠다고 하는 태도를 너무 일찍 보입니다. 재밌는건 이 끝은 명나라와 고려가 전쟁을 하는 걸로 끝납니다. 친명정책을 했는데 명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이 요동정벌입니다. 이성계가 중간에 되돌아와서 위화도 회군으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정도전은 과거에 급제하고 34살에 나주로 유배당하고 42살에 이성계를 처음 만납니다. 51살에 조선을 건국해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정도전의 유배 생활은 다른 관료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대다수의 관료가 유배를 가서 반성문을 씁니다. 반성문은 시를 써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임은 임금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임이 아니라 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민을 발견했다고 평가 합니다. 행동이 임금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로 바뀌게 됩니다.

정도전은 국가와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고려시대에는 아무도 안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도전이 처음 이 말을 했고 조선의 상식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처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후 토지개혁을 시작합니다. 당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왕실까지 개입해서 막으려고 하니까 왕까지 바뀌가면서 밀어붙여서 개혁을 합니다. 이때 정도전은 이정도로는 안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토지를 모든 농민에게 나눠주고 모든 농민을 자영농으로 만든 다음 1/10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로 생활하게 해야 한다는게 정도전의 구상입니다. 당시에는 실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도전이 나중에 혁명가가 될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를 정해놓고 그쪽 방향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업무를 하다 보면 방향을 놓칠 수

06.27 (화)	● 광주청년일경험 통합 회의	06.30 (금)	● 1610회 금요조찬 포럼 ● 청림사회민관협의회
06.29 (목)	● 광주·전남합동일자리박람회		

1. 경제 동향

◆ 경총,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발표 (6.25)

○ 경영자총협회가 6월 25일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임금결정 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각 항목별 검토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음.

① (지불능력 측면)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미만율이 30%를 넘고 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음.

② (생계비) 現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최저임금의 정책적 대상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선 수준임.

③ (유사근로자 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 산업경쟁국인 G7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에 해당함.

④ (노동생산성) 최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그 차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 더욱 두드러짐.

⑤ (소득분배) 그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고용노동부, 「2023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6.29)

〈 고용 부문(’23.5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1,946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만명(2.0%) 늘어나며 ’21년 3월부터 27개월 연속 증가

Ⅲ. 노동경제동향

- (입·이직) 입직자는 94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0.8%) 증가했고, 이직자는 8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4%) 증가

〈 근로실태 부문('23.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370만 6천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2만 6천원(3.5%) 증가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7시간(△4.7%) 감소
 - ※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1일 감소(21일→20일)

[1~4월 누계 근로실태]

- (명목 임금) 1~4월 누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404만 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만 2천원(2.3%) 증가
 - ※ 사업장 규모별 명목 임금상승률(1~4월 누계, %) : [300인 미만] 2.1, [300인 이상] 1.8
- (총 근로시간) 1~4월 누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8시간으로 전년동기 대비 1.6시간(1.0%) 증가
 - ※ 1~4월 누계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기대비 2일 증가

◆ 한국은행, 「2023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 (6.29)

- 2023년 6월 업황BSI는 76*으로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2023년 7월 업황전망BSI는 75로 전월대비 1p 하락
 - * 업황BSI 추이 : 69('23.2)→ 72(3)→ 72(4)→ 76(5)→ 76(6)
- (제조업) 6월 업황BSI는 73*으로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7월 업황전망BSI는 72로 전월에 비해 1p 하락
 - * 제조업 업황BSI 추이 : 63('23.2)→ 70(3)→ 70(4)→ 73(5)→ 73(6)

Ⅲ. 노동경제동향

- (비제조업) 6월 업황BSI는 77*로 전월에 비해 1p 하락했으나, 7월 업황전망BSI는 78로 전월과 동일

* 비제조업 업황BSI 추이 : 73('23.2)→ 74(3)→ 74(4)→ 78(5)→ 77(6)

◆ 한국은행, 「2023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6.28)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6월중 100.7로 전월(98.0)대비 2.7p 상승

* 소비자심리지수(CCSI) :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 (2003년 1월~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0을 넘은 것은 2022년 5월(102.9) 이후 1년 1개월만에 처음.

▶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 90.2('23.2)→ 92.0(3)→ 95.1(4)→ 98.0(5)→ 100.7(6)

-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69)는 전월대비 5p상승, 향후경기전망CSI(78)도 전월대비 4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146)는 전월과 동일, 임금수준전망CSI(116)도 전월과 동일

-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6월 3.5%로 전월과 동일

※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4.0('23.2)→ 3.9(3)→ 3.7(4)→ 3.5(5)→ 3.5(6)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 (79.0%), 농축수산물(34.0%), 공업제품(23.8%) 順

- (물가인식)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인식' 은 6월 4.6%로 전월대비 0.1%p 하락

※ 물가인식 추이(%) : 5.2('23.2)→ 5.1(3)→ 4.9(4)→ 4.7(5)→ 4.6(6)

◆ 국제금융센터, 「아시아 신흥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지속 및 시사점」 발표 (6.22)

Ⅲ. 노동경제동향

○ 최근 아시아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아시아 신흥국 :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대만, 태국, 중국 등

-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급등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년 하반기 정점 통과 이후 하락세

- 인플레이션 정점 시점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현재 대다수 아시아 신흥국은 공통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진행 중

○ (디스인플레이션 요인) 아시아 신흥국은 공급망 정상화,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안정, 중국 성장세 약화 우려, 기저효과 등으로 향후에도 디스인플레이션이 예상. 다만, 이상기후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도 일부 상존

- (공급망 정상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발되었던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줄어들면서 공급 병목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게 완화

※ 글로벌 공급망압력지수는 '22년 12월(1.2)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하며 '23년 5월(Δ1.71)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

- (식품 및 에너지 인플레이션 둔화) 아시아 신흥국 소비자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 및 에너지 부문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세는 향후 디스인플레이션을 주도할 가능성

※ 인도(39.1%), 필리핀(34.8%), 태국(31.4%), 인도네시아(20.1%) 등 주요 아시아 신흥국 대다수가 소비자물가에서 식품이 10~40% 내 비중을 차지

- (중국 성장세 약화 우려) 중국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며* 성장세 약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가 감소

* 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조업 PMI는 2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밑돌고 있음

(제조업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이하이면 경기수축을 예고)

※ 중국은 서비스 소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상품수입으로 인한 아시아 신흥국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유발하기에 제한적

○ (시사점) 이상기후에 따른 공급측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있으나,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금년 하반기 정책 우선순위를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경기둔화 위험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유의

2. 노사 동향

◆ 정부는 공공부문의 위법·불합리한 단협 시정,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 등 노동개혁 추진에 주력

○ 고용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노동개혁의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6. 28 노동위원회에 136개 공공기관의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5개 노조의 불법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 요청

- 금번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 특혜(특별휴가 부여 등), ▲인사·경영권 침해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노조의 불법 규약으로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조 탈퇴를 제한하는 사항 등이 포함

- 고용부는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토대로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노조가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벌금) 방침

○ 한편, 고용부는 6. 30 정부 지원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

- 금번 현장 조사의 대상은 정부가 민주노총에 사무실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한 총 30억원의 보조금으로, 고용부는 동 보조금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는 계획

- 다만, 민주노총은 지난 4월 고용부의 회계 자료 비치·보존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저지한 만큼 금번 현장 조사에서도 물리적 충돌 가능성 우려

◆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부의 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우려 표명

○ 야당 의원은 6. 27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업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6. 15)이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주장

2. 노사 동향

-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정하지만, ▲금번 대법원 판결은 연대책임을 인정하면서 책임비율을 제한하는것인 만큼 ▲대법원 판결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
- 한편, 경총은 6. 29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경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
 - 손경식 회장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 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
 - 또한, 개정안 통과시 ▲원·하청간 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산업현장의 상시적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혼란 우려를 지적하며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난항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6. 29)이 도래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제8차(6. 27), 제9차(6. 29)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 지속
 - 경총 등 사용자위원회는 ▲최저임금 지급주체의 지불능력, ▲최저임금법상 예시된 4가지 결정기준*, ▲2018~2022년 5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률(41.6%) 등을 지적하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으로 시급 9,620원(전년과 동일) 제시(6. 27, 제8차 전원회의)
 - *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 반면, 근로자위원회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으로 시급 12,210원(전년 대비 26.9% 인상) 제시(6. 27, 제8차 전원회의)

Ⅲ. 노동경제동향

- 근로자위원들은 제8차 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후 개의 선언 전에 퇴장했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두차례에 걸쳐 회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근로자 위원들은 불참
- 근로자측 최초제시안은 회의 시작 전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 제출·접수

○ 한편, 노동계는 천막농성, 결의대회 등 최저임금 인상 압박을 위한 장외투쟁에 집중

- 한국노총은 김동명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6. 26 정부세종청사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제9차 전원회의(6. 29)에 맞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 신임 고용부 차관에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내정

- 정부가 6. 29 11개부처 12명의 차관에 대한 개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신임 고용부 차관에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내정

[참고] 이성희 신임 고용부 차관 내정자 주요 약력

- 1998 : 매일노동뉴스 편집국 국장
- 2003 : 한국노동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 2007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국장
- 2015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실 고용노동비서관
- 2023. 3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